

인접학회간의 적극적인 협력

강 인 구

(금성 중앙연구소장)

21世紀가 始作되는 西紀 2000년에 世界 7大 技術 先進國 進入을 目標로 하는 우리는 現在 政治·經濟·社會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科學 技術 分野는 技術 蓄積이 貧弱하여 先進 諸國과의 技術 格差를 줄이는데 큰 障壁을 넘어야 하는 重要한 變換期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특히 基礎 研究 分野가 全無하였던 70年·80年代 技術 導入에 依한 製品生産에 全적으로 依지하였던 產業界는 模倣에 依한 限界點이 到處에서 드러나기 始作하였으며, 누구나 自體 技術 開發에 切迫性 내지는 當爲性을 強力히 主張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時點에서 學界에서 研究되는 知識·情報을 產業界에 傳達해 주는 媒介體인 學會 特히 現代 產業社會의 基盤을 構築하는 尖端技術分野인 電氣學會에 21世紀를 指向하는 位像에 對해 所見을 이야기할 수 있는 機會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一旦 21世紀에 展開될 電氣工學 分野의 傾向을 一般적인 見地에서 조감해보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視角을 좁혀서 產業界에서 本學會의 바람직한 方向이랄까, 도움을 要請해야하는 點들에 對해서 매우 手動的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電氣工學分野의 性格은 多邊化, 分野의 專門化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電氣工學의 領域이 넓어지고 깊어짐을 意味할 것입니다. 過去에 電力 및 에너지 分野를 主로 意味하였던 韓國의 電氣工學은 하나의 孤立된 專攻 分野로 存在하지 않고 電力工學, 電子工學, 通信工學, 電子

計算 및 制御工學 分野로 크게 分化되었습니다. 지금의 電氣工學은 電力工學을 包含하여 素材·材料·制御 計測 등 材料·電子·物理 分野가 중첩되는 分野를 擔當하고 있으며, 다른 分野(學會)와 中첩되는 新生分野는 繼續해서 增加할 것으로 期待됩니다. 特히 새로운 特定分野의 研究開發 및 結果의 應用 適用速度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다른 學問과 中첩된 分野의 發生은 더욱 加速化될 것입니다. 이는 다른 見地에서 볼 때 電氣工學 分野의 領域 擴大이며, 擴大되는 分野가 隣接 分野(學會)와 거의 必修의인 聯關 關係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電氣學會에 所屬되어 있는 10여개의 專攻 分科(研究會) 및 電氣 學術誌의 特輯號가 다루는 內容의 廣範圍性과 現在 存在하는 電子工學會, 材料工學會의 分科를 살펴보면 쉽게 그 傾向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重要한 것은 隣接한 學問과 學會와의 中첩된 領域에서 學會 活動이 協同내지는 相互 補完 活動이 巨視的 見地에서 매우 바람직하겠습니다. 學會의 生命이나 學會 活動의 役割이 學界와 產業界의 情報 傳達의 媒介體(센터) 내지는 交流 活動의 廣場이라는 側面에서 볼 때 學會의 協同은 手動的인 產業系에게는 實地的으로 상당히 重要한 點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學會 活動의 內容面에서 볼 때, 電氣工學 分野는 特히 電氣·電子 產業系에서 볼 때 尖端分野이고, 產業系의 技術開發의 方向에 對해 크게 影響力을 미쳐왔기 때문에 有望한 分野의 發掘 및 特定 有望한

分野에서는 技術的으로 深度있는 持續的 積極的인 學會活動의 強化가 要求됩니다. 卽 學會活動이 學界나 產業系에게 權威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점차 모든 活動이 國際化 趨勢에 있기 때문에, 國內에서 뿌리를 갖고 始作한 學術活動이 경륜을 쌓아 國際的으로 名聲이 있는 學會 活動이 되는 것입니다. 電氣學會가 試圖하는 몇몇 國際學術 會議 活動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매우 鼓舞的인 일이고 이를 基盤으로 좀 더 깊이 있고 持續的인 活動이 되길 期待합니다. 理論的으로 깊이가 있고 學會의 質을 높이는 側面도 매우 重要하지만 產學協同의 觀點에서 產業系에서 關心있는 特輯내지는 每月 新分野의 技術·情報 紹介를 強化하여 產業系의 關心을 高調시키는 點도 必要하다고 봅니다. 產業系와 學會가 共同으로 研究할 수 있는 課題나 分野의 發掘을 통해 產學協同의 理想的인 model을 構築하여 證明하는 例를 만드는 것도 未來 學會의 바람직하고 現實的인 作業일 것입니다.

產學協同과 맥을 같이하는 學會 活動中, 產業系 技術者, 研究員의 再教育 program을 遂行하는 것도

產業界로서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產業系에서 自體的으로 研究院 技術者를 再教育시키는 機會는 매우 制限되어 있고 普遍化되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한 技術發展의 速度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新分野의 分化에 따른 教育은 더욱 어렵게 될 것입니다. 學界에서 蓄積된 研究結果라든지 새로운 分野의 概念定立, 方向決定 等の 主題를 細分化하여 產業系 技術者 再教育의 活動은 產業系에는 매우 意味있는 일일 것입니다.

以上을 整理하면, 學會는 理論的 深度를 깊이하여 世界的으로 權威있는 學術會議를 主觀하고, 產學協同의 側面에서 產業界 教育, 技術·情報 交流 活動을 強化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活動中에서 特히 중첩된 分野의 隣接한 學會間 協同 活動結果는 매우 重要的인 面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0年 後에 우리 學會의 모습이 제가 言及한 것 以外에 많은 면에서 더욱 發展하길 期待하며 21世紀에는 先進技術 韓國이 이런 學會活動의 基盤 위에서 우뚝 서기를 다시 한번 祈願합니다.